

금산사 방등계단의 가치와 위상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목차

- I. 머리말
- II. 戒壇의 經典儀範과 동북아시아戒壇의 形制
 - 1) 경전의범에서의 계단의 정의와 계단의 구성
 - 2) 도선의 『계단도경』
- III. 金堤 金山寺 戒壇의 考古學的 現況
 - 1) 금산사 계단의 현황
 - 2) 금산사 계단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제언
- IV. 맺음말

戒壇 승려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이며, 계단이란 계를 주고 받는 공식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사분율』과 같은 초기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성한 의례인 수계를 위한 공간은 그 유형에 따라 다시 야외에 구축되어 구조물로 항구성을 가지는 것과, 필요 시 실내에 조성하여 의례를 진행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실제, 동북아시아에서 야외계단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들 구조물로서의 계단은 唐代에 道宣율사가 동북아시아 계단의 形制를 규범화하고 저술한 『關中創立戒壇圖經』(이하 戒壇圖經)은 계단의 형제를 기본으로 조성되고 있다.

국내의 야외계단 중 도선의 『계단도경』의 형제를 기본으로 조성된 사례는 통도사와 금산사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남아 있다.

형제의 구조는 두 계단이 유사하지만,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통도사는 『금강계단』으로 통칭되고, 금산사는 『방등계단』이라 칭해지고 있다.

이 글은 우선 그동안 제대로 보고된 바 없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금산사 계단을 외형적으로 분석하고 도선의 『방등계단』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람에서 계단이 위치하는 공간성과 승려공간에서의 위계적인 부분을 밝혀내 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 간 개별적으로 영역으로 다루어져 오던 구조적 연구와 사상적 접근을 결합해 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계단이라는 구조물이 사상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그 명칭도 다르게 부여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계단, 경전의범, 계단도경, 노지계단, 수계의식

I. 머리말

戒壇이란 석존의 제자가 된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인 戒를 주고 받는 장소를 의미하며, 초기불교부터 수계와 관련된 의범이 佛說의 형태로 경전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불교에서의 신성한 의례로 이들 의례를 위한 특별한 공간과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계와 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분율』, 『오분율』등 초기 율장에서부터 여러 경전들에서 계의 의미와 계를 설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들 경전의범들과 계단에 대한 학술성과를 우선 요약하면 계를 설하는 장소는 고정된 형태와 주요 당우에서 필요시 설치하고 결계를 해제하는 형태로 구분되며, 고정된 경우도 야외에 설치된 노지계단과 당우 안에 마련된 실내계단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단의 여러 유형 중 야외에 마련되어 있는 노지계단은 동북아시아의 불교국가에서 소수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 국내의 경우도 실제 경전의범에서 설하는 규모에 비견되는 것으로, 현존하거나 근대까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야외에 건립된 계단 사례는 금산사 계단과 함께 통도사 계단, 북한지역의 불일사 계단 정도로 극소수이다. 계단이 불교의 윤리적 덕목을 확인하는 신성한 영역이고,

의식임에도 실제 수계나 계를 설하는 장소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불교 연구 분야에 비해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계장소에 대한 연구와 현존하는 계단에 대한 정밀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본 발표에서는 보물26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산사 계단의 현황을 근거로 불교의범에서 보이는 원형과 문화재적 가치에 대하여 소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교의범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노지계단이 가람에서의 위치와 위격은 어떠하며, 계단으로 구성되는 정의는 무엇인지 불교미술적 여러해석과 비교하여 경전의범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며, 실제 이 계단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언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보이는 부재들의 규격과 복원된 모습에서 보이는 모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불교의범과 문화재 측면에서 노지계단에 대한 정의와 구조를 불교적 견지에서 명확하게 정의해 보는 것을 발표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I. 戒壇의 經典儀範과 동북아시아戒壇의 形制

1. 경전의범에서의 계단의 정의와 계단의 구성

① 『四分律』¹⁾

「수계건도」부에 나오는 기록에는 戒場이나 戒壇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계장에 출입하는 내용만 언급되는데 여기서 계장이 곧 계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四分律』권35 受戒犍度에 언급된 戒場이란 사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戒場이란 것은 境內地를 벗어난 적당한 장소에 땅을 골라 평평하게 만들어 걸계하고 청정지역으로 만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五分律』²⁾

승방 안에 계단을 만들 때는 반드시 백이갈마로서 기존의 僧坊界를 버리고, 백이갈마로서 새로운 계장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승방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때 戒場과 승방계가 겹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승의 영역과 계단의 영역

1) T22, pp.803-812. 後秦(405)때 佛陀耶舍와 竺佛念이 번역. 『사분율장』이라고도 한다. 혜남, 「불교의 수계의식과 계단」, 『동아시아불교문화』2, p.119, 2008.

2) T22, pp.108-114. 424년 佛陀什과 竺道生 번역. 미사책부에서 전하는 율. 초분(初分)에는 비구율, 제2분은 비구니율, 제3분은 수계법·포살법·안거법·자자법·의법·피혁법·약법·식법·가치나의법, 제4분은 멸쟁법·갈마법, 제5분은 파승법·와구법·잡법·위의법·차포살법·별주법·조복법·비구니법·오백집법·칠백집법을 밝혔다.

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원주림』

이 경에서는 승계단의 역할과 모양이 명기되어 있다. 승계단은 수계 의식 외에도 ‘목건련을 시켜 僧戒壇에서 종을 울려 대중을 모았다.’라는 내용과 ‘탑은 계단과 같고, 3중의 섬돌이 있으며, 그 위에는 얹어놓은 가마솔과 같은 것이 그 수효가 많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계단 북쪽에 가서 종을 울려라’는 내용에서 계단에 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석가가 계단으로 가서 북쪽으로부터 단에 오르셨다.’는 내용은 북쪽(북동쪽)이 계단의 주요 역할 공간이었던 것을 표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현재에 일본 당초제사의 계단 수계방법에서도 북동쪽에 수계위치가 배열되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④ 『尼羯磨』³⁾

설계당을 만드는 법과 해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당, 각 상당, 경행당 강 옆 나무아래에서 戒堂을 만드는 법과 해체할 때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수계를 주는 계단과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계단과 같은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唐(676~682) 때 懷素가 西太原寺에서 편찬. 『사분니갈마』라고도 한다. 『사분율』에 따라 비구니의 여러 법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편집한 것.

⑤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⁴⁾

권1에 ‘五天의 壇場은 절 안의 한적한 곳에 둔다. 다만 방장의 사변을 벽돌로 쌓는다. ‘높이는 두 자 정도이다. 내 변의 기단 높이는 五寸이다’

여기에서 계단과 계장의 용어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⑥ 『彌沙塞羯磨本』⁵⁾

계장과 계단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방법과 표식방법⁶⁾, 계단을 결계하는 순서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⑦ 『根本薩婆多部律攝』(근본살바다부율집) 권1

(인도의 계단)에서는 백이갈마에 의한 소계를 짓는 법을 밝히고 있는데 ‘서방에 있는 것은 모두 평지를 벽돌로 두르고 階級은 없다. 가운데 制底(caitya, 祠)를 두고 문은 한쪽으로만 향하도록 하고 있다.’⁷⁾

4) 唐(703)때 義淨이 西明寺에서 번역.

5) T22, pp.214-226. 唐(705~706)때 愛同이 편찬. 『五分羯磨』라고도 한다. 소승 부파인 미사색부의 전승 율장 가운데서 승가의 일상적 행사에 관한 부분을 모은 것.

6) ‘四方戒場の 모양을 큰 소리로 제창하겠습니다. 이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標]로부터 서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서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동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다시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입니다. 이것이 戒場の 모양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7) 7번 각주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戒壇 용어와 행위에 대한 것을 『한글대장경』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1〉 『한글대장경』에서 戒壇의 용례

	역경	경전	내용	page
1	당(710)/의정	근본살바다부울설	戒壇이나 처마 앞이나 누각 옆이나 집의 문 아래에 있는 모든 공양	228p5
2	당(703)/의정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2	계장: 계를 받는 일정한 장소	456p10
3	당(705~706)/애동	미사색갈마본	<p>결해제계법(結解諸界法) 계(界: 구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설승계(攝僧界)는 비구가 법을 함께 하는 것을 보호하여 다른 여러 허물이 없도록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의계(攝衣界)는 의복을 비구에게 소속시키는 것을 보호하여 의복을 벗고 잠을 자는 데서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일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설식계(攝食界)는 음식에 의하여 비구에게 장애되는 것을 보호하여 음식에 대한 두 가지 제계(制戒)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p>	6p13~6p17
4			<p>결해승계법(結解僧界法) : 본래 결계(結界)하였던 것을 각각 해제하고 모두 하나의 구역으로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나중에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넉넉해지자 모두 하나로 결계했던 것을 해제하고 다시 소계(小界)로 결계하게 되었다.</p>	6p20
5			<p>계외(界外)에서 소계를 결계하고 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것을 계단(戒墮)이라 한다”고 하였다.</p>	7p1
6			<p>계를 주고 나면 방내(坊內)에서 계를 주는 것은 그 만두어야 한다. 또한 비구가 계를 받으려는 사람을 데리고 계단에 있는 곳으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약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방내에서 계를 주는 계장(戒場)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승방의 결계를 그만두고 난 뒤에 계장을 결계하고 큰소리로 그 모양을 제창하여 내지(內地)를 제외하고 다시 승방계(僧坊界)로 결계해야 한다. 이것이 곧 먼저 계장을 결계하고 나중에 대계(大界)를 결계하는 것이다.</p>	7p3

8) 최태선, 「신라 · 고려전기 가람의 조영연구-경전의범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6. 재인용.

	역경	경전	내용	page
7			오분계본(五分戒本)에서 처음에 인연을 따라 계외(界外)에서 계장을 설치한 것은 문서에 근거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제 차례에 따르면 두 자리가 있으니, 첫째는 계장(戒場)이고 둘째는 대계(大界)이다.	7p9
8			결계장법(結戒場法) 대중을 모으고 문답하는 방법을 갖추고 나서 먼저 큰 소리로 사방계상(四方界相)을 제창한 뒤에 백이 갈마(白二羯磨)로 결계한다.	7p14
9			창사방계상법(唱四方界相法): 한 비구가 큰 소리로 사방계상을 제창한다. 만약 제창하지 않으면 결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물이나 연기나 불을 가지고 계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두 개의 계상을 만들거나 두 개의 계상이 서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니, 모두 結界가 성립되지 않는 것	7p19
10			계상을 제창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의(威儀)를 갖추고 니사단(尼師壇)을 펼치고 가축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 예배를 하고 나서 합장한 채로 알려야 한다.	7p28
			계단을 결계하고 나서 다시 승방계를 결계한다.	914p
11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사방계장(四方戒場)의 모양을 큰 소리로 제창하겠습니다. 이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標]로부터 서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서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동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다시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입니다. 이것이 계장(戒場)의 모양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8p1
12			세번 말한다. 반드시 굴곡과 문호(門戶)의 많고 적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반드시 문서를 갖추어야 일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의 끝까지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 한다	8p5
13			정결계장법(正結戒場法): 아무개 비구께서 계상(界相)을 제창하신 바와 같이 이제 승가에서는 결계(結界)를 하여 계단(戒壇)을 만들어 대중이 함께 머물고 함께 포살을 하며 보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p11
14			해계장법(解戒場法) 이미 계장(戒場)이 성립되면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다.	9p1
15			이 곳은 결계를 한 곳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계(界)를 버리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십시오.	9p5

	역경	경전	내용	page
16	당 (660~670)/ 도세	법원주림	존자 대가섭은 작은 목건련[이름이 같은 자가 6인이었는데 다 큰 신통이 있었다.]을 시켜 승계단(僧戒壇)에서 종을 올려 대중을 모으니, 백역 사천하의 범성(凡聖)들이 다 모였다.	494p5
17			탑은 계단(戒壇)과 같고 3중(重)의 섬돌이 있으며 그 위에는 얹어 놓은 가마솔과 같은 것이 그 수효가 매우 많습니다.	579p2
18			계단(戒壇) 북쪽에 가서 종을 울려 지방의 스님들을 불러라. 저 보현보살·觀音보살 등과 또 내 분신인 백역 석가불을 모아 각각 누각을 타고 계단(戒壇)의 처소로 오게 하라.'	1431p5
19			계단으로 가서 북쪽으로부터 단에 오르셨는데,	3766p4
20	당 (676~682)/ 회소	니갈마 16 잡행편	설계당(說戒堂)을 만드는 법/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한 비구니가 위의를 갖추고 큰 소리로 아무 대당(大堂)이나 각상당(閣上堂)이나 경행당(經行堂)이나 강 옆이나 나무 아래나 돌의 옆이나 풀이 난 곳에서 외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131p8
21			설계당을 해체하는 법/전에 세운 설계당을 해체한 뒤에 다시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한다	131p14~15
22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 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132p2

이상 경전의범의 정리를 통해서 계단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경전에서부터 수계를 위한 곳은 별도로 결계되며, 場, 壇의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장과 단의 차이는 경전에 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넓고 편평한 지형위에 결계의식을 통하여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계의식이 이념적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인지와 이들에 대한 구분은 초기경전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경전에서 표현되는 계단시설은 受戒를 위해서 별도로 상시적인 계단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불전이나, 선당에서 결계를 통해 계단을 섰다가 수계의식이 끝나고 나면 戒堂을 해체하는 형식으로 추정된다.⁹⁾

다만, 수계공간이 초기에는 승단이 모인 가람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오분을 단계에서는 수계를 위한 승려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가람공간에 포함되기 시작하며, 이때에도, 기존의 승려영역을 일부 해제하고 공간을 배열하되 승의 공간과 수계공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러한 경전의범적 영역구분의 터부는 실제 동북아시아 가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7세기의 중국에서 편찬되는 법원주립에서는 계단은 3층의 단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에는 가마솔을 얹은 듯한 모습(반구형 사리장치?)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계단 주변에는 계단과 함께 종(鐘)을 두는 영역이 북쪽에 별도로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주요구성원이 계단에 오를 때는 북쪽을 통해 오르도록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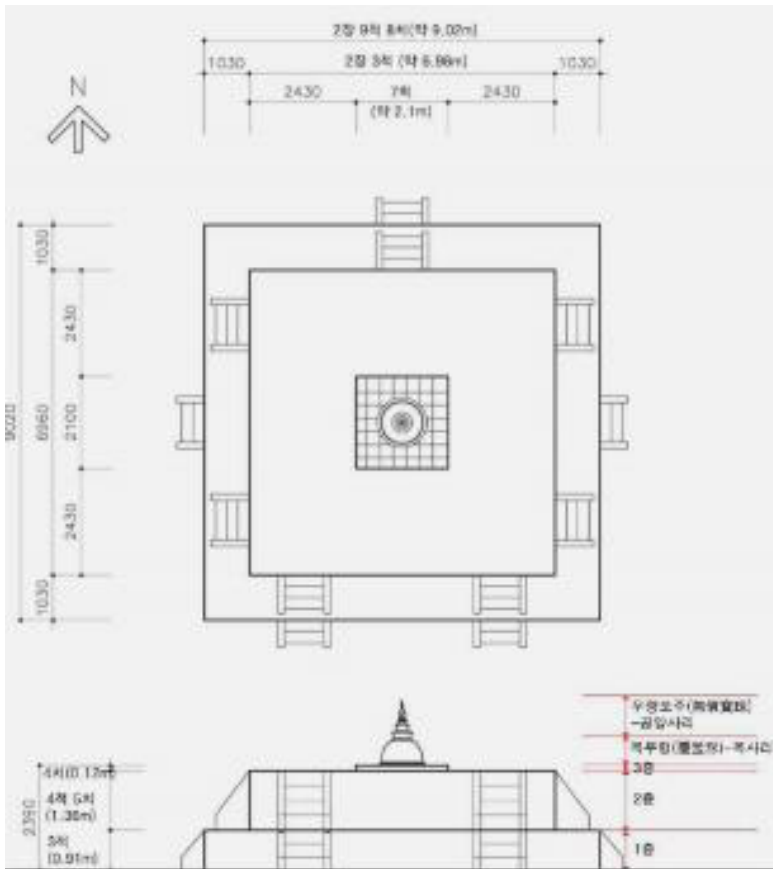
이러한 법원주립에서의 내용은 초기경전에서 보이는 인도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7세기 이후의 계단모습과 구성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단서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경전에서는 계단의 규격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이러한 내용이 곧 야외계단이 건립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이는 해남스님의 글에서도 그 변화와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해남 앞의 글 p.117, p.121.

2. 도선의 『계단도경』

唐代에 道宣율사(596-667)는 동북아시아 계단의 形制를 규범화 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그가 지은 『關中創立戒壇圖經』(이하 戒壇圖經)은 계단의 형제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표 2〉 『계단도경』의 戒壇 추정도

(박언곤, 이재인, 최효식, 2007. 앞의논문 p 106)

본 발표에서는 이경화¹¹⁾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제시한 『계단도경』에서의 形制내용을 근거로 하여 형상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 戒壇은 측면 3중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¹²⁾, 중앙에는 사리가 봉안된 복발을 올렸고, 그 복발위에는 다시 無價寶珠를 올려 5重을 구성한다.¹³⁾
- 戒壇의 높이는 전체는 약4.66m¹⁴⁾이며, 하층기단 높이 93.3cm, 중층기단 높이 140cm, 상층기단 높이 12.44cm¹⁵⁾이고, 하층기단 너비는 926cm, 중층기단너비 715.3cm, 상층기단 너비 219.1cm¹⁶⁾이다.
- 계단의 장엄은 계단의 앞쪽에 2개의 등을 설치하되 상층보다 높은 (239cm이상) 높이로 한다.
- 기단 면에는 감실을 두어 제신왕을 안치한다. 각 하단과 중단 기단 면에는 감실을 마련하여 신상을 배치한다.¹⁷⁾
- 하층기단에는 5개의 階段이 있고, 階段마다 2神을 배열 도합 10신을 배치한다.
- 2층기단 감실에는 각 7성신씩 28성신을 배치한다. 하층과 중층의 기단 모서리에는 높은 석주를 세우고 기둥밖에 사천왕상을 배치한다.

11) 이경화, 「중국 당 도선의 계단과 금산사 계단」, 『역사학연구』35, 2009. pp33-35.

12) 이것은 3空을 상징하며 佛法에 드는 初聞으로 삼는다.

13) 계단은 3단+복발+보주 즉, 5중을 구성하며, 이는 오분법신(戒, 定, 慧, 解脫, 解脫知見)을 상징한다.

14) 5佛肘(15척)

15) 장충식은 91cm, 136cm, 12cm로 계속하고 있다. 장충식, 「韓國石造戒壇考」, 『佛教美術』4, 1997.

16) 장충식은 902, 696, 210cm로 계속하고 있다.

17) 신상을 배치하는 부분은 경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戒壇은 전체적으로 작은 수미산형을 이루며, 10師(3師7證)가 복발을 돌고 중단 기단면에 자리를 마련한다. 戒壇에는 21명을 수용한다.¹⁸⁾

이 『계단도경』에서의 形制는 계단도경 및 사료들과 연구자들의 견해와 같이 인도의 초기 계단의 모습에서 중국의 문화요소가 더해져서 중국(동북아시아)화된 계단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원정사의 戒壇說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지역적)으로도 문화변화의 과정을 겪은 후의 자료들이기 때문이다.¹⁹⁾ 즉, 『계단도경』에서 확인되는 형제는 중국화된 계단의 모습이고, 한국의 노지계단도 이러한 形制를 기본으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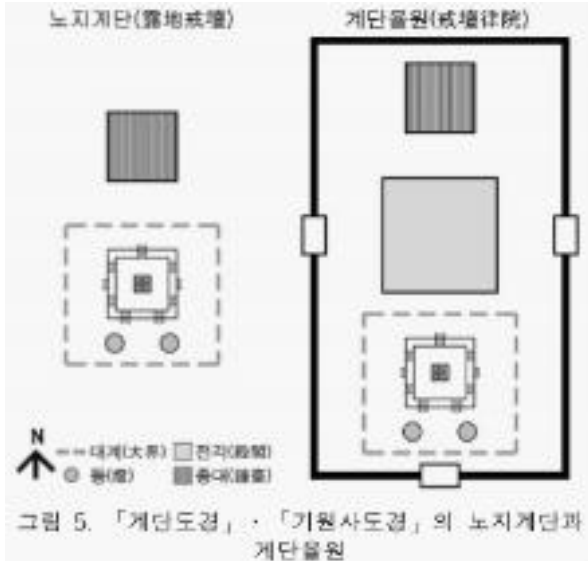
이러한 경전의범과 중국의 계단도경에서 계단시설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① 계단의 건립 위치

계단의 위치는 사분율과 오분율에서의 내용에서처럼 처음에는 가람에서 떨어진 곳에 수계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승가의 수행과 불교입문을 위한 수계 의식공간과는 격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점차 수계법사의 안전문제로 가람의 영역에 계단시설이 포함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8) 수용장소는 계단의 상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기술하고 있는 ‘절 안의 한적한 곳에 각변 3.1m이상 높이 2척의 벽돌담으로 쌓은 단층 기단안에 높이 5촌의 대좌를 두고, 중앙에는 작은 지제가 있다.’는 내용은 『계단도경』의 중국식 形制나 『계단도경』에서 도선이 기술한 (인도) 기원정사의 戒壇시설과는 차이가 있어보인다.



〈표 3〉 최효식·이재인(2012)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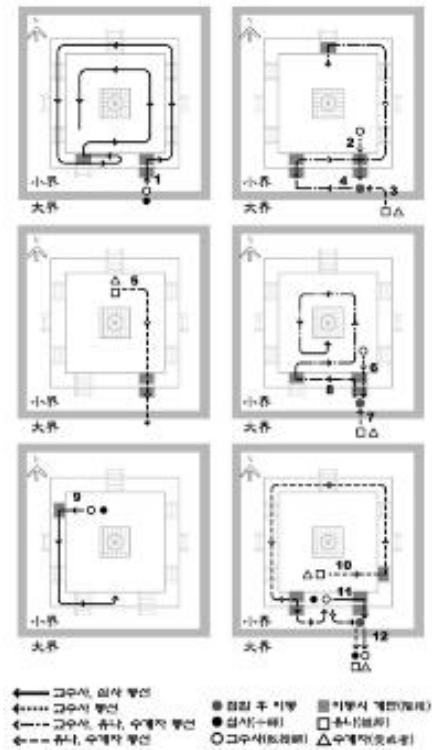
계단이 가람영역에 포함되었음에도 율장과 소의경전들에서는 계단과 수행공간인 승지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히 중심사역²⁰⁾의 외곽에 자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義淨(635-713)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처럼 인도 나란다사원의 계단은 가람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7세기의 인도사원의 계단의 모습을 동북아시아 승려의 관점에서 명시한 자료로, 계단은 중심사역의 외곽에 위치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단의 위치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 여기서 중심사역은 불지는 물론, 승지의 중심영역을 의미한다.

② 계단의 구성시설

계단시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설인가에 대한 것은 법원주립의 내용에서는 계단의 북쪽에 종을치는 시설(종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계단도경에서는 계단과 함께 戒壇院시설이 기원정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식의 계단에서는 앞쪽에 계단의 상면높이 만큼 높은 석등 2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최효식·이재인²¹⁾은 계단도경에서 설명하는 유형을 표4와 같이 노지계단과 종대, 노지계단과 계단원과 종대의 두종류로 모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4에서처럼 노지계단을 중심으로 계단원과 종대시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



〈표 4〉 계단도경의 출입동선

21) 최효식·이재인 「중국북경지역 戒壇배치와 形制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10), 2012, p.240.

으로 표현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계단시설에서의 종대가 동북아시아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을 건축학연구자들에서는 종대가 표현되지 않고, 대신 계단의 중앙에 사리를 봉안하는 시설물이 경전에서 노반, 복발로 표현되었던 것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형부도 형태로 확인되므로, 종대의 의미가 중형부도 형태로 대체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²²⁾ 이러한 논의는 불교원리에서 본다면 종각과 중형부도(인도 불탑의 외형)와의 연결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중형부도는 석가 앞에서 제자들이 수계의식을 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통도사 계단 내에 사리봉안 기록 등은 중형부도가 종대 표현의 변형이 아니라 처음부터 탑과와 같이 불교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겠다.

③ 계단의 출입동선

계단도경의 출입동선에 대해서 박언곤 · 이재인 · 최효식은 앞의 논문에서 계단도경의 수계의식 동선을 분석하여 교수사, 삼사칠증과 유나, 수계를 받는 수계자의 동선이 각기 다르다고 하고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2) 박언곤 · 이재인 · 최효식, 「한국 불교사원의 계단과 계단도경의 비교연구」, 『건축사학연구』 16-2, 2007.

이재인, 「일본 戒壇배치와 形制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5), 2011.

최효식 · 이재인, 「중국북경지역 戒壇배치와 形制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10), 2012.

- 교수사의 인도로 계단에 오른 십사는 계단 상하에 자리를 잡는다.
- 교수사는 계단을 내려가 유나의 인도로 大界에서 들어온 수계자들과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2번 반복한다.
- 교수사는 의식마지막에 먼저 계단 1층에 기다리고 있다가 유나와 함께 나오는 수계자들을 보고나서, 대계로 같이 빠져나온다.

이러한 동선은 모두 한쪽 방위의 층계와 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남쪽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이들 내용과 경전의범을 비교하면 법원주립의 해석처럼 증명법사 등 주요구성원은 북쪽을 통해 오르고, 북쪽의 종루를 거쳐서 진입하는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전의범과 차이가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방식으로 변화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Ⅲ. 金堤 金山寺 戒壇의 考古學的 現況

1. 금산사 계단의 현황

금산사의 戒壇은 보물 제26호로, 方等戒壇으로도 불리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소개에는 金剛戒壇으로 명시되어 있고, 금산사의 문화재안내판에는 ‘방등계단사리탑’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칭에 있어 혼돈이 있다. 방등계단으로 불리게 된 것은 766년 금산사 중창주

진표율사의 행적²³⁾에서 그의 주석과 함께 매해 단을 열고 널리 법시를 베풀어 그 단석의 정엄함이 말계에는 아직 없었던 일이었다는 데서 대승의 수계를 펼친 곳에서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구분되는 금산사 방등계단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표기인 금산사 금강계단의 명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 외 불교미술사적으로는 재료에 따라 石造戒壇으로 명칭되기도 한다.

① 계단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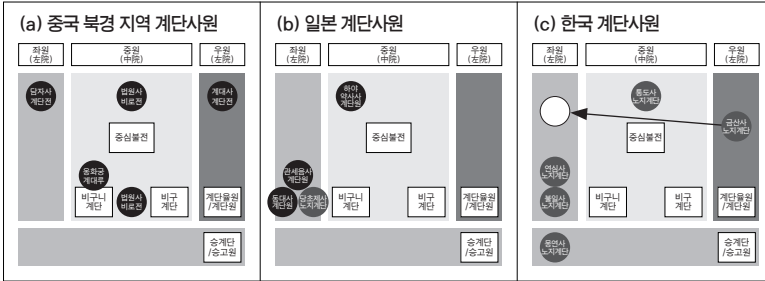
계단이 위치하는 지점은 대적광전의 동북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금산사의 원래 불전인 미륵전을 중심으로 한다면 미륵전의 우측(일반적인 가람배치로는 서편) 독립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²⁴⁾ 현재 독립된 구릉은 서편과 남쪽은 석축시설로 정비되어 있으며, 동편은 별도공간으로 구획된 부속시설과 접해 있고, 북쪽은 구룡사면으로 연결된다.

금산사 계단이 위치한 주변의 시설배치도 시간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계단의 남쪽에는 고려시대의 5층석탑이 중심선을 약간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계단의 동편은 변화가 심하여 1960년대에는 나한전이, 1986년에는 나한전과 송대향각이 배치되어 있다가 2010년 이후에는 적멸보궁이 계단과 동-서 축으로 건립되어 있다.²⁵⁾

23) 三國遺事 권4「眞表傳簡」條

24) 최효식·이재인(2012)은 1705년 건립된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계단의 분포위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산사의 가람배치의 시간적 흐름을 간과한 배열로 생각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다.

25) 최대선, 「조선중기 금산사의 중창과 가람배치의 변화」,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 금산사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pp.86-93.



〈표 5〉 한중일 계단의 위치(최효식 · 이재인, 2012, p.243 재구성)

계단 남쪽의 오층석탑²⁶⁾이 원래부터 이곳에 위치한 것인지, 조선 시대 중건때 옮겨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고조사 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으나, 戒壇儀範에 건주어 불때 불사리의 이중배치는 불교의 범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후대에 편의상 옮겨져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미술적 연구에서는 이들 계단과 오층탑이 세트관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²⁷⁾

계단의 위치와 계단 주변의 시설에 대해서는 금산사의 경우 북쪽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서편과 남쪽은 석축으로 다른시설과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획은 『사분율』에서 정의하는 大界의 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만일 이 범위를 대계의 범주로 가정한다면, 그 내부에 현재 공존하는 오층탑과 1960년대의 나한전 그리고 현재의 적멸보궁 등은 계단과 관련된 부대시설이 아니며, 계단도경의 의범과 비교할 때는 잘못

26) 사리기에서 982년 완공되었고, 조선 세조연간에 중수되었으며, 1492년 다시 탑을 중수하고 사리등을 봉안한 것으로 중수기에 적고 있다.

27) 장충식, 『韓國石造戒壇考』, 『佛教美術』4, 1997. pp.124-125.외

된 조합이거나, 의미의 변화에 따른 후대의 관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노지계단 사례인 당초제사의 계단도 가람의 최 서편외곽에 별도의 담장(大界?)으로 둘러싸인 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노지계단 단독으로만 현존한다.²⁸⁾

계단도경의 기원정사 계단도에서도 승계단과 계단원은 중심사역의 서편(중심전각의 향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의 방위에서 계단은 주로 중심건물의 서편(중심전각의 향좌)에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僧地에서 핵심승려시설이 중심전각의 서편에 배치되는 것과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²⁹⁾

② 계단의 구조와 제원

금산사 계단은 불교미술사의 일반적 설명에서는 이중의 기단을 갖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근래에 건축학적 연구에서 계단도경의 상단부가 노반 또는 복발을 두기 위한 낮은 기단으로 높이가 20cm내외이고, 상단의 폭 역시 210cm 인 점에서 금산사계단의 중앙에 종형부도 형태의 시설의 기단을 상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산사와 통도사의 계단을 3중 계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³⁰⁾

28) 계단주변에 건물지 시설이 있었다는 설과, 이 계단도 여러번 변화를 거쳐 19세기에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어 원형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9) 최태선, 앞의 논문, 2016.

30) 박언곤 외, 2007. 앞의 글.

이경화, 2009. 앞의 글.

최효식 외, 2012. 앞의 글.

발표자도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며, 계단도경의 의범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장충식³¹⁾은 2중계단으로 해석하면서 금산사 계단의 제원을 표기할 때 하층기단높이 100cm(계단도경 91), 중층기단 높이 75cm(계단도경 136), 석종대석높이(3중기단?) 20cm(계단도경 20)로 계측하고 있다. 또한, 너비에 대해서도 하층기단 폭 1250cm(계단도경 902)내외, 중층기단 폭 830cm(계단도경696), 석종대석(3중기단?) 폭 203cm(계단도경 210)로 계측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제원은 계단도경의 치수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3중층계의 계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³²⁾

계단의 북쪽을 제외한 동,서, 남쪽에는 7구의 신상이 배열되어 있다. 이 신상은 계단의 기단측면에 부조된 천인상과 보살상외에 별도로 난간석처럼 세워져 있는데 도선의 계단도경에서의 상단 7구씩의 신상배열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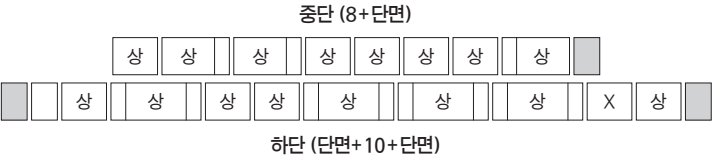
현재 금산사의 기단 면에 배치된 면석은 실측보고서를 참조로 하였을 때 중수시에 제대로 복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 이유는 면석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치된 부조신상의 숫자도 일정하지 않다. 향후 정비 시에 석재 개별의 실측과 함께 각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재청의 실측조사보고서의 도면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직접 체크한 각 방위별 수리복원된 면석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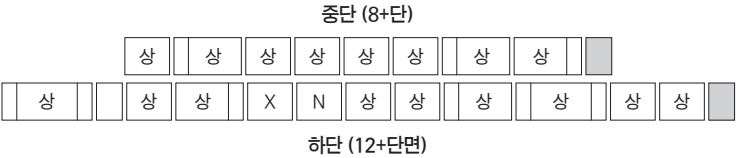
31) 장충식, 1997. 앞의 글.

32) 통도사의 규모는 하층기단폭 980cm(높이 97), 중층기단 폭 712cm(높이 40), 석종대석 직경 155cm(높이 19)로 장충식은 계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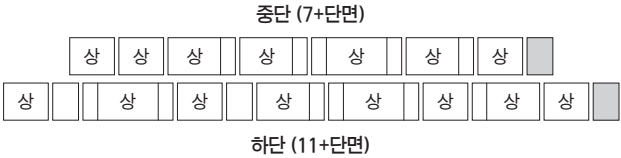
〈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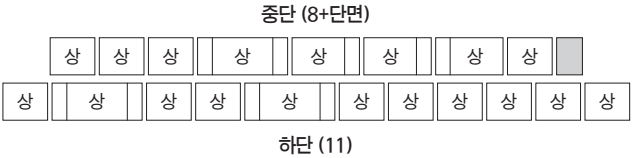
〈북편〉









〈서편〉



〈남편〉



-  좌우 탕주표현이 없는 면석
-  좌측만 탕주표현이 되어 있는 면석
-  우측만 탕주표현이 되어 있는 면석
-  좌,우 탕주표현이 되어 있는 면석
-  좁은 보조면석
-  반대측면의 면석단면(탕주역할)

〈표 6〉 금산사 계단의 정비된 중단, 하단의 면석유형



〈사진 1〉 방등계단 동편



〈사진 2〉 방등계단 북편



〈사진 3〉 방등계단 서편



〈사진 4〉 방등계단 남편

현재 금산사 계단의 각 면석은 계단도경 기록인 ‘감실에 제신상을 배치한다’는 규범을 탕주 사이에 신상을 표현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리과정에서 계단도경의 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단면석의 안상으로 인식하여 적의 재배치한 것처럼 정비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다.

후일 여력이 되면 금산사 계단에 표현된 제신상을 계단도경의 규범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이에 맞는 형태로 배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③ 계단 상면의 사용법

도선의 계단도경에는 ‘10師가 중앙의 복발구조물을 돌고, 중단 기단 상면에 자리를 마련하며, 戒壇(상면)에는 21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수계시의 계단중층 上面에서의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수계시에는 3師7證과 아사리, 수계집도를 도우는 유나, 그리고 수계자 등 포함 21인까지 계단의 상면에 오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당초제사의 授戒會의 모습에서는 북동단 모서리에 3사7증과 아사리가 복발을 향해서 자리를 펴고, 수계자는 남쪽에서 북측을 향하며 계단에 오른 자는 모두 병향로를 수지하고 수계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단에서의 공간 활용을 알 수 있게 한다.(최태선:2016)³³⁾

또한, 경전에서 戒壇의 북편에 범종이 배치되어 있어 유사시에 종을 울려 사람을 모으는 내용과 석가가 수계할 때에 북쪽으로 올라서

33) 奈良博物館, 『國寶 鑑眞和上展』, 2010.

의식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에서 적어도 수사등의 주요동선은 남쪽보다는 북쪽(또는 동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⁴⁾

2. 금산사 계단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제언

금산사 계단과 같이 수계를 위한 노지계단이 분명한 것으로 실물이 현존하거나 자료가 남아 있는 곳은 통도사 금강계단과 개성의 불일사 계단유적이 전부이다. 그 외 불교미술에서는 중형부도 사리탑과 관련 지워 외형상 방형의 단을 갖추고 중형부도가 세워져 있는 자료를 포함(안심사, 용연사), 이와 비슷한 승탑(신록사, 월정사)을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하며(박언곤외:2007), 금강계단과 통도사 계단을 석조부도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하는 등³⁵⁾, 노지계단의 분명한 정의와 유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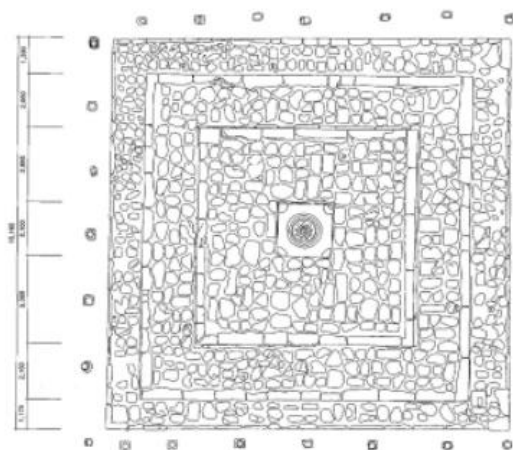
석조로 조성된 금산사, 통도사, 불일사의 노지계단을 제외하고는 계단원으로 불리는 전각 내에 목조형태로 계단이 마련되었거나, 초기경전처럼 일정 전각에서 필요시에 계단을 이념적으로 설치하고 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남아있지 않다.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고려불교의 계단상황³⁶⁾에 비해 고고자료로는 3개 소만이 남아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금산사의 계단이다.

자료의 희소성으로 인해 이들 석조계단(노지계단)의 정확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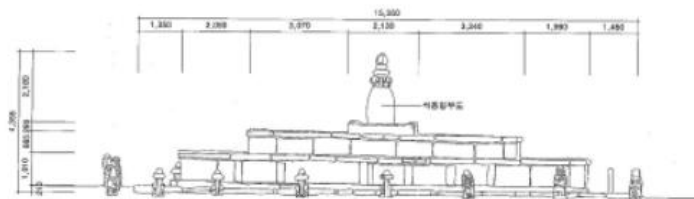
34) 박언곤은 앞의 글에서 계단도경을 정리하면서 주요 동선이 앞쪽으로 되어 있음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 경전내용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 당초제사의 수계 의식도 앞쪽이 아니라 동북 모서리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북 모서리는 오방작법에서 곧 북쪽에 해당한다.

35)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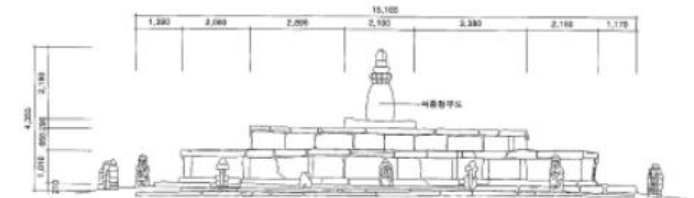
36) 한기문, 「신라말, 고려초의 계단사원과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12,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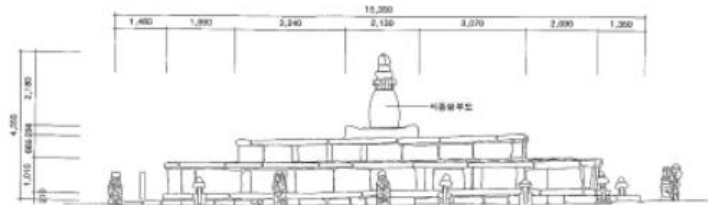
[도면6-2] 방등계단 평면도



[도면6-3] 방등계단 정면도



[도면6-4] 방등계단 좌측면도



[도면6-5] 방등계단 배면도

〈표 7〉 금산사계단 실측도(문화재청, 『김제금산사대장전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이나, 기반층의 고고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석조공예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가 전부인 셈이다. 이와함께 수계의 방법이나 형태도 왕조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계첩제도로의 변화등에서 노지계단의 기능도 축소화 되거나 의미가 변화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통도사 금강계단과 적멸보궁의 관계, 그리고 이를 모방한 금산사의 계단과 동편의 적멸보궁의 신설, 그리고 근래에 복원형태로 건립된, 건봉사과 도리사의 계단과 적멸보궁 등, 노지계단이 계단의 기능보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탑과로 인식되고, 그 사리에 참배하는 적멸보궁의 건립형태로 신앙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모습은 한국불교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결합되는 과정의 뚜렷한 경전의범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속불교에서 기인한다는 격하된 해석이 더 타당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건축학적 연구들에서는 노지계단과 관련한 시설들의 시간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조합하는 연구들이 많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불교의범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 통도사 적멸보궁이 계단원의 변화로 보는 견해와, 계단의 중앙에 모셔진 사리로 인해 탑신앙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견해 등은 당시의 불교흐름과 부합되지 않는 오류들로 보여진다. 고려, 조선시대의 탑신앙은 이념불인 상신앙으로 완전히 교체된 시기임에도 조선시대의 사리신앙의 새로운 등장과 확대라는 점은 그러한 오류라 생각된다.

금산사의 석조계단은 현재 적멸보궁과 함께 조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불교의범상의 계단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는 측면이다.

국내 2곳밖에 현존하지 않는 노지계단인 금산사의 계단을 사중이나 교계에서는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우선 문화재로서 금산사 계단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교의법적 측면에서 계단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중의 결심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종단에서 진행되는 수계의식과 방법은 계단에서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수계와 관련한 불교의법적인 활용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하다면 현재 계단과 적멸보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경전의법적으로 정례화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즉, 시간적인 불교의식의 변화에 따라 ‘계단의 상면을 활용하던 수계의 공간에서 사리신앙을 숭배하는 초기불교 신앙공간으로의 활용’이라는 명확한 정의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문화재적인 가치와 활용을 위하여 계단시설의 정확한 계측과 해석을 위한 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는 계단의 외형을 측량하는 정도이고, 세부적으로 계단기단면의 부재가 정확히 제자리인지, 동일부재인지, 통도사 계단의 기단면처럼 새로이 첨가된 부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금산사 계단의 기단면은 계단도경의 기록처럼 감실은 없으나, 신상 좌, 우에 각기 탕주를 모각하고 있으므로 탕주간의 간격 등을 정밀 계측하여 면석에 새겨진 제신상의 숫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면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계단에서 보이는 노지계단내에 기둥을 세워 전각을 올리는 시설이 있는가 등도 함께 조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조사의 바탕위에서 계단도경의 구조와 신상배치와의 관계 등의 규명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일 기단을 새로이 정비할 때에는 기단저부의 간단한 고고

조사를 통해 중건된 시기 등을 토층으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남쪽에 위치한 오층석탑과의 관계도 아울러 규명하여 금산사의 노지 계단의 정확한 문화재적, 불교의법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IV. 맺음말

이번 발표에서는 보물 제62호인 금산사 계단을 자료로 국내에 현존하는 노지계단의 정의와 의미를 경전의범과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살펴해보았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수계의식을 담당하였던 노지계단은 시기에 따른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부정확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교계에서 활용되는 의미도 당초보다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문화변화론 견지에서 이러한 변화는 수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인지 민속불교적인 흐름에서 변화하는 것인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후자의 변화라면 원형을 찾는 작업은 경전의범과 규범을 근거로 복원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사분율
- 오분율
- 법원주림
- 니갈마
-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 미사한갈마본
- 근본살바다부율섭
- 삼국유사

- 박언곤 · 이재인 · 최효식, 「한국 불교사원의 계단과 계단도경의 비교연구」, 『건축사학연구』16-2, 2007.
- 이경화, 「중국 당 도선의 계단과 금산사 계단」, 『역사학연구』35, 2009.
- 이재인, 「일본 戒壇배치와 形制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27(5), 2011.
- 장충식, 「韓國石造戒壇考」, 『佛敎美術』4, 1997.
-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 최효식 · 이재인 「중국북경지역 戒壇배치와 形制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28(10), 2012.
- 최태선, 「조선중기 금산사의 중창과 가람배치의 변화」,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 금산사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pp.86-93.
- 최태선, 「신라 · 고려전기 가람의 조영연구-경전의범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6.
- 한기문, 「신라말, 고려초의 계단사원과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12, 1988.
- 해남, 「불교의 수계의식과 계단」, 『동아시아불교문화』2, 2008.

- 문화재청, 『김제금산사대장전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 奈良博物館, 『國寶 鑑眞和上展』, 2010.

Value and Status of Geumsansa Temple Square Precept Platform

Choi Tae Sean JungAng Saigha University

To practice precept is ethical virtue issue for Buddhist monks and Square Precept Platform is proper rite for conferment of precepts. In early sutras like Dharmagupta-vinaya(四分律), Space for performing ceremony of conferment is divided into exterior construction and interior platform fitting variable situation.

Open-air precept platforms in Far Eastern Asia were not very popular. All these platforms follow standard form from the book 'Illustrated Scripture concerning the erection of the Ordination Platform in the Guanzhong Region(關中創立戒壇圖經)' by Daxuan(道宣), Tang dynasty.

Domestic examples of exterior construction following Daxuan Scripture Ordination Platform are Tongdosa Temple's and geumsansa temple's. Both construction structure are similar but in another contexts.. Tongdosa has 'Diamond Precept Platform' name while Geumsansa has simple 'Square Precept Platform'.

This study focuses on the external architectural approach to the constructural viewpoint of Geumsansa Temple Precept Platform. Also very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meaning and difference of Geumsansa Temple Precept Platform comparing with Daxuan Scripture Ordination Platform has been figured it out .

Through this study, it turns out the importance of the Ordination Platform location in the monastery. Also it has hierarchic spatial characteristic in the monastic life. Combined study between architectural approach and philosophical approach show this ordination platform has significant name change in different eras.

